

수원교구 병원사목의 현황과 과제

수원교구에서는 병원사목을 교구내의 중대형병원이라 할 수 있는 보바스기념병원, 헤리티지너싱홈요양원, 분당서울대병원, 고대안산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병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적인 기획이나 조정은 교구 사회복음화국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서비스는 각 병원의 원목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원목신부는 교구(대리구청 사회복음화국장) 신부와 수도회 신부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수녀회가 원목 신부와 공동으로 병원사목을 수행하고 있다.

병원 원목실의 일반적인 사목은 주일미사, 봉성체, 병자성사, 고해성사, 평일미사, 신앙상담 등이며 각 병원별 특성에 따라 원목실 운영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각 병원별 원목실의 현황과 업무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안산고대병원에서는 원목 신부와 수녀님께서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견진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주대병원의 경우는 1,000개의 병동을 지닌 큰 병원으로서 봉성체 대상자가 많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신자 환자들을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봉사자들과 함께 날마다 병상 전체를 돌며 인쇄물(주보, 가톨릭신문, 평화신문)을 배포하여 입원중인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가톨릭 소식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나 병원 측에서 환자들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



홍명호 베드로 신부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아 수녀님과 봉사자가 병실을 일일이 돌며 신자들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한다.

안양 평촌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은 설립자의 특별한 배려로 병원 내에 성당과 원목실이 잘 구비되어 있고 원목수녀님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좋은 조건에서 사목할 수 있는 환경뿐 아니라 환자 관리 시스템도 잘 구비되어 있어 환자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기에 신속하게 환자를 방문하여 그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빈센트병원의 원목실은 원목사제와 원목수녀 11명,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 병원과 다르게 병실 층별로 수녀님들이 배정되어 있고, 장례식장도 담당 수녀님이 배정돼 있으며 불교나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배려하고 있다. 특히 성빈센트병원 원목실에는 가톨릭 병원이 지향하는 사목적 특성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 많은 인력이 파견된 관계로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신자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분석하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우선 방문 순위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방문은 연세가 많은 환자들은 직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젊은 환자들은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빈센트병원 원목실의 또 다른 업무는 호스피스 지원 사업이다. 호스피스 병동의 사목은 다른 병동과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목적 관계 이외에도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원목실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재정

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병원사목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

성빈센트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원목사제가 구내에 상주하고 있어 언제나 병자성사 등의 급한 일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의 기타 병원들도 각각 상황에 맞게 원목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병원보다는 열악한 상황에서 병원사목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수원교구의 병원사목은 각 병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교구 차원에서의 병원사목은 대리구청 사회복음화국장 신부의 파견 및 상·하반기 원목 수녀와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친목도모를 위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목적 차원에서는 각 병원이나 본당간의 연계를 위한 행정적 서비스(주로 교적 찾기와 본당신부 연결해주기)와 냉담자, 조당자를 위한 사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전담사제의 양성이나 파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수원교구에서는 원목사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젊은 신부들을 중심으로 CP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서 향후 병원에 파견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사목에 전담하도록 교육시킬 예정이다. 교구장 주교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병원사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곤 하신다. 이를 위해 젊은 사제 중심으로 희망사목분야를 파악한 결과 많은 사제들이 병원사목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수원교구에서는 젊은 사제를 중심으로 병원사목을 체계적으로 공부시키고 파견함으로써 교회의 보편적 사명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